

사료곡물의 동향을 주시하자

근래에 사료곡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가격이 오름세이고 세계적인 재고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지난 1년 사이에 수입가격이 30% 가량 상승했고 국내 배합사료가격도 여러 차례 인상되었다. 또 세계적인 금년 작황이 작년보다는 훨씬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양돈산업에 관계하는 많은 분들은 아마 1970년대초 석유파동에 이어 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하던 악몽을 기억할 것이다. 주로 기상이변에 의한 감수와 오일쇼크의 여파로 구 소련과 중공이 대량 구입하는 바람에 곡물가격이 2배, 3배로 뛰어오르던 일 말이다. 그때 한국도 유신체제, 8·3조치, 외환부족 등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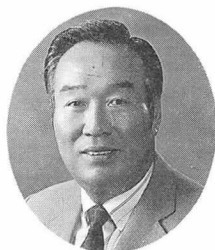
국내 일간신문에서는 1면 톱기사로 곡물도입과 사료가격의 어려운 사정을 다루기까지 했다. 총 배합사료 100만톤, 사료곡물 수입량 50만톤 가량의 시장규모였는데 정부가 배합사료가격을 완전 동결하여 사료업체는 경영압박, 양축가는 고가와 품질저하로 정말 견딜 수 없는 난국을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1973년 8월에는 업계대표를 미국에 파견하여 다음해 봄까지 쓸 옥수수 35만톤을 현지 구매하기도 했다. 그후 최고가격을 나타냈던 1974년 연말의 도입가격은 톤당 180불을 넘었으니 20년이 지난 현재의 160불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 셈이다.

어떻게 1970년대 중반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축산은 3년여 동안 정체기를 헤매다가 그후 곡물가격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확대를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전반기에는 값싼 중국의 옥수수와 사료용 소맥공급이 원활하여 양돈업이 비교적 호황을 누린 셈이다.

한국 양돈산업은 현재 축산업 중에서 배합사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1975년 15%이던 것이 1985년에는 30%로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33%가 양돈사료였다.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또 돈육의 시장개방은 양돈산업의 앞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양돈산업은 진정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등등의 갖가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러한 때에 사료곡물에 대한 걱정이 요즈음 또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사료곡물의 국제적인 사정은 솔직히 말해 걱정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자꾸 조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과 같은 극한적인 사정은 아닐 것이고 또 웬만한 어려움은 극복해 나갈 힘도 생겼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WTO체제로 인한 가격경쟁이 몹시 민감한 과도기에 사료가격의 상승요인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다.

9월 12일 현재 미농무성이 조사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 사료곡물의 1995/96 물량수급과 가격



박 영 인 회장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전망을 요약해보면 대략 이러하다.

첫째, 물량수급면에서 세계의 곡물공급은 전년보다 4%, 수요는 1.2% 떨어져 이월재고가 무려 40% (옥수수는 50%)나 적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맥, 쌀, 옥수수 등 모든 곡물의 생산이 줄고, 특히 옥수수의 경우 세계적으로 9%, 미국이 23% 생산감소를 예상하는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낮은 연말재고의 수준은 지난 20년내 처음 있는 일이며 금후 몇 달 동안의 기후상태가 중요한 관심사로 되어가고 있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은 이미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옥수수의 농가수취가격은 전년대비 무려 22%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연도 평균이며 벌써 상당부분이 현재의 시세에 반영되었고 한국 도착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선임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긴박한 공급과 가격사정을 감안하여 금년에 7.5% 작부 제한한 조치를 내년에는 전면 해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어쨌든 앞으로 수확기까지 기상을 비롯한 세계적인 수급요인의 변화에 더욱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도입사료곡물은 그 직접적인 최종 소비자가 양돈농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개선대책을 과감하게 찾아야 한다. 물론 더 나아가면 돈육소비자가 궁극적인 최종 수요자이지만, 어쨌든 사료곡물을 직접 수입, 배합하는 업체만이 수요자인 것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 지향적으로 가격과 품질문제가 다루어져야 비로소 국제경쟁의 과제가 풀릴 수 있게 된다.

국제경쟁의 대상상품은 신선육, 냉동육 형태의 가식성 돈육이고, 그 이전 단계의 생돈이나 배합사료, 더구나 사료곡물은 돈육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전제조건이지 완전 충족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국제상품인 돈육중심으로 사료곡물-배합사료-생돈-돈육의 전 과정을 경영적인 연계 내지 통합을 해야 하고 사료곡물과 배합사료도 양돈을 위한 생산자재의 일부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농가가 직접 사료곡물을 수입하여 배합, 사양하는 방식일 것이나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여기에 접근하는 대책을 세우면 된다. 따라서 기존 사료산업의 특화체제는 WTO 상황에서 공생, 공존, 공영 할 수 있는 양돈농가 지향적인 체제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양돈인은 앞으로 사료곡물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동시에 수입과 배합에도 더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완전경쟁시대에 생돈 생산비, 나아가 돈육 생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강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